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랑가라 49av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순천향대보단 작지만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구내에 식당도 많고 전자레인지, 온수 정수기, 음료 자판기, 스낵 자판기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는 현대영어 수업과 유사하고 EO(English only)대화를 유도합니다. 첫 째주 수업은 English Essentials 둘 째주 수업은 Cultural studies 셋 째주 수업은 Global Citizenship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해서 10시쯤 15분 정도 쉬는시간 갖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15시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활동은 그랜빌아일랜드, 컬링, 밴쿠버 박물관, 아쿠아리움, 카필라노 현수교 에 다녀왔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에서는 학교에서 정해진 팀들과 함께 탐방하였습니다. 컬링은 2시간 정도 배우게 됩니다.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배우면서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차고 2010년 밴쿠버올림픽 장소여서 더 새로웠습니다. 밴쿠버 박물관에서도 학교에서 정해진 팀과 함께 탐방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니다. 아쿠아리움은 동물들 쇼타임시간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구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필라노 현수교에서는 캐나다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에서는 학교에서 주는 활동이 없어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비용 발생은 학교측에서 이용 비용을 제공해줍니다. 다른 기념품을 사지 않은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3주동안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첫 짜주는 눈이 많이 내려 하루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매시간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일기 예보에서는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어 항상 우산을 챙겨야 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노숙자분들이 역 근처에 종종 보여 유의하여 돌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인도에서 이민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점이 있다면 제 방이랑 홈스테이가 생활하는 공간이 매우 밀접해 개인 방이 있어도 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좀 불편했습니다. 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아 그냥 문 닫고 생활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점심시간에는 홈스테이 집에서 저녁에 먹다남은 음식을 점심에 싸주던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보내어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교통	생각보다 일식 집이 많아 놀랐습니다. 밥 생각날 때는 일식 집이나 한국 식당을 찾아 다녔습니다.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 나눠주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밴쿠버 zone1지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m6:30분이 지나면 zone2,zone3 지역도 무료로 패스가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zone이 나눠지지 않아 어디든 학교에서 준 카드 찍고 돌아 다닐 수 있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320만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비행기	190만원	
eta승인	6천원	
보험료	4만원	
환전	120만원	카드 사용
합계	320만원	(카드사용제외)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밴쿠버에서 관광도 했지만 쇼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쇼핑을 자주 하다 보니 캐리어는 기본 2개 챙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더 오버 될 상황을 대비해 학교에서 생활할 가방을 백 팩으로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리어에 들어가지 않은 짐은 비행기에 12kg정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가기 전에 어떤 곳을 방문하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밴쿠버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

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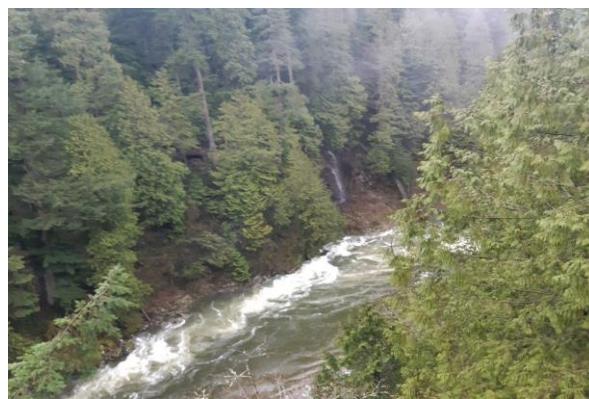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밴쿠버에서 보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알아보고 다녀왔지만 3주동안 날씨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마운틴 뷰도 적지 않게 아름다워서 좋았지만 파란하늘 보단 구름 많은 흐린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캐나다로 여행을 오게 된다면 여름에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사회인 만큼 정말 다양한 문화를 간접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캐나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문화가 조성되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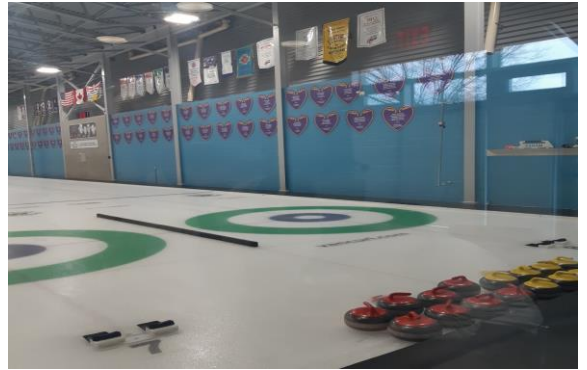
카필라노 현수교 뷰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



컬링



다운타운



스탠리 파크(자전거도로뷰)